

사람이 자연에게...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김진수의 '당신은 그곳에...' 장지에 분채·금분 등 재료로 전통 오방색 바탕 자연 색감 7월 한 달 텔문도뮤지엄



김진수의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까?' (장지에 먹, 분채, 2021)

지난해 봄 그가 불러낸 당신과 이 계절 다시 호명하는 당신 사이엔 코로 나19가 있다. 작업 시점이 감염병 시국을 체감하기 전과 후로 갈라기 때 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곳에 있었 습니다'란 연작의 의미는 이번에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7월 한 달 동안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텔문도뮤지엄에서 개인전을 펼 치는 김진수 작가다. 그가 '2021 당 신은 그곳에 있었습니까'란 주제로 지난 4월 경기도 경인현대미술관에 이어 제주전을 갖는다.

41회, 43회 두 차례 제주도미술대 전 대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업 바탕엔 자연이 있다. 제주에 정착한 그는 특히 이 섬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선보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날들이

예전같지 않은 시기에 작가는 작업 실에 머물며 그 자연을 동경했다. 멀리 있기에 더 그리운 존재였고 가만 가만 불러낸 당신이란 이름은 한층 애뜻해졌다.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지 금의 재난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건

당신이였다. 그 당신은 비단 자연에 한정되지 않고 말없이 서로를 응원 해주는 사람일 수 있고, 종교인에게는 신일 수도 있다. 그곳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작가는 한지를 여러 장 겹쳐 만든 장지에 먹과 분채, 금분을 이용해 제 주 자연을 담아냈다. 아교와 물, 색 분말을 섞어 수십 번 채색 과정을 반복하며 뽑아낸 색감은 전통 오방색 을 넘어 깊이를 더한다. 질제된 선으 로 나뉜 화면에선 오름과 제주 바다 가 떠오른다.

김 작가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 는 어떤 이가 자신의 그림을 보고 마 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말을 했던 일 화를 전하며 "화가로서 책임감을 느꼈 다. 내 작업이 어떤 이에게는 큰 위안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희망을 이야 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계곡이김관

<258>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땀이 꿀땀, "하르바님 감제돌래땀 부시레길 가나귀땀이 먹어마썸?" 하르바지 꿀땀, "오게, 남조 아요가 먹으렐 주난 가나귀땀은 머릴 7막이땀 땀 부시레길 꼭꼭 좇안먹어라." 쫘네 꿀땀저, "사름땀이 좋아후는 땀을 쥐시난 가나귀땀도 잘 먹었구나양?" 하르바지 꿀땀, "경후주게, 사름땀이 좋아후는 음식을 가나귀땀도 좋아후주. 남조 아은 이제 가사후쟁 후땀 이디 저디 이신 문독땀을 치완게. '자, 집에 가사 후난 이제랑 일어삼서.' 후땀 여조 아을 부추후현 후땀 후땀 걸어지게 도웨후주."

* 제주어 풀이

- *부시레길 : 부스레기를 *먹어마썸? : 먹나요?
- *7막이다(7막거리다, 7막이다) : <음직> 끄덕거리다.
- *잘 먹었구나양? : 잘 먹었겠네요. *경후주게 : 그렇게 하지.
- *가사후쟁 후땀 : 가야했다면서.
- *이디 저디 이신 : 여기저기 있는.
- *문독(문독, 문지레기, 문지, 문지레기) : <이름> 이것저것 쓸어모은 쓰레기나 티끌 따위. 먼지와 뒤섞인 너저분한 지푸라기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
- *이제랑 일어삼서 : 이계는 일어서요. *부추후현 : 부추해서.
- *걸어지게 도웨후주 :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재민 화백



종이 위 풀어는 '붓의 멋, 먹의 맛'

문인화제주작가회 회원전 좌경신 등 초대작가 6명

먹과 종이에 담아낸 자연의 모습을 통해 사색으로 이끄는 문인화. 마음 속 고정관념을 허물고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화면으로 새로운 세계를 빛는 '이 시대의 문인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제주 문인화자들이 작품을 연다. 7월 3일부터 8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펼쳐는 문인 화제주작가회의 네 번째 회원전이다. 문인화제주작가회는 대한민국미술 대전 문인화 부문 제주 지역 초대작 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2016년 6월 창립해 해마다 정기전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각기 다른 장에서 사군자, 문인화를 지도하는 스승으로 활동 하고 있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붓의 멋, 먹의 맛'을 주제로 탄탄

한 이력의 작품을 보여준다. 참여 작가는 6명으로 좌경신의 '행복한 오후', 최형양의 '담라의 선계-역 새바람 1', 문춘심의 '장수의 세월', 양남자의 '매화 향기', 윤미형의 '여름', 문옥희의 '청포도'(사 진) 등을 볼 수 있다. 문인화제주작가회는 "신록의 계절 이지만 뜻하지 않게 자유롭지 못한 공간과 시간이 연속되고 있다"면서 "일상의 일을 잠시 접고 이번 전시를 통해 잠시나마 안식의 순간을 느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체 개발·설치 작품 한글서에 확장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 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정호승 의 '봄길' 중에서)는 구절을 품은 우 리 시가 목향에 실린다. 제주도한글 서예사랑모임이 펼치는 회원전을 통 해서다.

BTS의 활약으로 전 세계 K팝 팬 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있 다지만 정작 우리 그 가치에 무심하 다. 이런 현실에서 현병찬 한글서예 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제주도한글서 예사랑모임은 서예를 도구로 한글의 조형미를 꾸준히 알려온 단체다.

7월 3-8일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리는 회원전은 올해로 27회째다. 이번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이름 아래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를 담 고 있는 시를 글감으로 백해 한글서 예술의 미학을 관람객들과 나눈다. 기존 한글서체에 얽매이지 않고 각 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꼴을 펼치 는 서체 개발 작품도 있다. 출품 회 원은 100명으로 이 중 30명은 돌맹 이 위 글씨로 제주도를 형상화한 설 치 작품 제작에도 참여했다.

첫날 오후 4시에는 박정숙 경기 대 서예학과 초빙교수가 '조선왕실 의 한글사랑'을 주제로 강연한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족을 중심으 로 그들이 주고받은 한글편지를 살 피며 한글교본의 변천사 등을 들을 수 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광령·외도고인돌 현장 학습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고 고학자와 함께 걷는 고인돌 로드' 주 제 현장학습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 대상을 달리 해 두 차례 열린다. 7월 24일에는 초 등 5~6학년과 중학생, 8월 7일엔 대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15명씩 선착 순 모집해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돌 관련 강의를 들은 뒤 광령리, 외도동 고인돌을 직접 돌아보도록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tamnago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녀·기상·제주의 색 전시

해녀박물관이 6월 22일부터 7월 31 일까지 세 개의 주제로 공동전시를 열고 있다.

'아름다운 꽃 제주해녀' 주제 전시 엔 2015년부터 우도와 구좌읍 평대리 해녀들을 사진에 담고 있는 문지숙 작 가의 작품 16점이 나왔다. '제주의 기 상(氣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기상 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작 중 한라산, 새별오름, 월정바다 등 제주 풍광사진 12점으로 구성했다. '제주의 색(色)' 은 지난 5월 참여 프로그램 결과물인 감물염색 원단 10여 점으로 꾸몄다.

'나는 자연인이다' 주제전

제주의 젊은 작가들이 자연과의 공 생을 꿈꾸며 '나는 자연인이다' 주제 전시를 열고 있다.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이어지는 이 전시 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 고 자연과의 공생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작가는 아트 스 튜디오 JISD (Jeju Island School of Deisgn) 소속된 24명이다. 이들 은 회화, 일러스트, 조각, 패션, 공예 품 등 제주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창 작한 50여 점을 출품했다.

탐라서각연구회 회원전

2004년 창립한 탐라서각연구회가 ' 향기나는 서각 풍경'을 주제로 7월 3 ~8일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제17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20여 명이 40점 이 넘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서각만 이 아니라 음악, 양각, 음평각, 음양각, 화각 등 여러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디자인과 채색법을 보여주는 현대서각 작품도 전시된다. 현승남 회장은 "코로 나19 장기화로 지친 분들이 나무의 기 분 좋은 질감에 새김질한 입체 작품으 로 휴식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